여순사건 피해신고 구례서 현장 상담

구례문예회관·산동·간전면 찾아 진실화해위, 2000여명으로 파악

여순항쟁구례유족회 회원과 관계자들이 위령제를 마치고 구례 현충공원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순항쟁구례유족회 제공〉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신고·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구례에서도 여순사건 피해자 현장 상담과 피해 신고·접수가 진행됐다.

여순항쟁구례유족회는 지난 26~27일 양일간 구례문화예술회관·산동면·간전면 등지에서 여순사건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여순항쟁구례유족회는 양일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구례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설명회 및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산동면과 간전면 등 피해가 심했던 마을을 찾아가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구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은 5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여순사건 피해 신고 요령을 안내받았다.

설명회 및 상담, 피해 파악은 구례유족회와 특별법제정에 앞장섰던 서동용 국회의원, 여순사건위원회 주철희 소위원장과 홍영기 위원, 서울 여순사건지원단, 전남도실무위원회와 전남 여순사건지원단, 구례군 담당 부서와 사실 조사원이 맡았다.

앞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동아대학교에 용역 의뢰 결과 구례지역 희생자는 한청단원 포함 2000여명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유족들은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순항쟁구례유족회는 여순사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깊은 산을 끼고 있는 군 단위 지역들의 피해가 클 걸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피해조사가 미흡한데다 고령화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신고를 대신할 지역 활동가도 부족한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졌기 때문에 전남도가 시 단위 지역보다 군 단위 지역에 홍보와 신고접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규종 여순항쟁구례유족회 회장은 "유족들이 단 한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피해신고를 하도록 군민지에 호소문을 냈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향우들에게 피해 신고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고령의 유족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억울함을 밝히는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하루빨리 꼭 이뤄지도록 정부와 사회가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 신청사 건립…행정중심 소통공간 제공

6월 착공, 2024년 입주 목표

곡성군이 45년 노후화된 군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 중 군의회 건물 철거를 시작하는 등 우선 시공분 공사를 시작하고 6월에는 신청사 건립사업 착공을 본격화한다.

이에 앞서 곡성군은 의회동에 자리 잡았던 곡성군의회와 CCTV 관제 센터를 기차마을 내 로즈홀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이전했다.

곡성군 청사는 1977년 건립 후 4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2003년 구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판정받았다.

협소한 공간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와 민원인 이용 불편 탓에 청사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 2019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화됐다.

곡성군은 다양한 신청사 건립방안을 검토한 끝에 현 군청 부지와 제2주차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한 후, 현재 구청사를 철거하는 방식을 택했다.

신청사는 1만8056㎡에 연면적 1만3622㎡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신청사 건립에는 건립 기금 428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2024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곡성군은 오는 5월 실시설계 적격 여부 심의를 거친 후 오는 6월에는 신청사 건립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시대 발전 변화에 따라 행정중심의 청사 역할뿐만 아니라 군민 편의, 문화 및 소통공간 제공이 가능한 청사로 구축할 계획이다"며 "청사 건립 기간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여수시 제1호 특산주 '금오도 방풍막걸리' 본격 시판

여수시의 제1호 지역특산주인 '금오도 방풍막걸리'〈사진〉가 판매를 시작했다.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진 방풍은 동의보감에 36가지 풍증을 치료하고 오장을 좋게 하며, 맥풍을 몰아내고 통풍과 어지럼증을 치료한다고 기록돼 있다.

전국 최대의 방풍 주산지, 금오도에서 나는 방풍은 다도해의 청정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품질에서 으뜸으로 손꼽힌다.

금오도 방풍막걸리는 남면 유송리 대유마을에 위치한 금오도섬마을방풍 농업법인에서 생산, 판매한다. 여수시의 지역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제조시설과 장비를 지원받아 개발됐다.

금오도 방풍막걸리는 방풍 잎에서 추출한 즙을 7.7% 첨가한 생막걸리다. 알코올 함류량에 따라 6%인 750㎖와 10%인 500㎖ 2종이 생산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금오도는 전국 최대의 방풍 주산지로 2월부터 4월까지 잎을 채취해 나물용으로 출하하고 있다"며 "막걸리 생산으로 방풍의 판로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 관광 상품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군 금산면 신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본격 추진

고흥군은 지난해 밭기반정비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된 금산면 신평지구의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산면 신평지구는 농로 및 용·배수 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미비로 영농에 큰 불편을 겪어온 곳으로 밭기반정비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돼 지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시행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마쳤다.

이번 사업은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구에 대해 용·배수로 및 농로를 일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은 전남도 측에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18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돼며 오는 5월 중 사업착수, 용배수로 1.2㎞와 농로 확·포장 4.3㎞를 2023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금산면 신평리 명천, 남천, 홍연, 월포, 신평마을 일원 70㏊의 경지면적이 영농여건 개선으로 농업경쟁력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광양시,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7월 준공

조감도

광양시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가 7월 준공을 앞두고 건축공사 마무리가 한창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국제터미널 인근 부지에 219억원 이상을 투입해 건설중인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는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며 공사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는 6303.5㎡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되고 있다.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 전문 식당, 카페 등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각종 수산 유통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은 유통물류센터 지하 1층의 냉동창고 시설과 지상 1층 활어·선어·냉동 판매장, 지상 2층 건어물 판매장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산물 유통 전문 법인체가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법적 요건 등을 충족한 법인이어야 하며, 선정기준은 제출한 법인을 절대평가로 심사 후 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한다.

시는 도매시장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매시장 운영법인 모집을 신중히 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광양시 철강항만과에 사전 문의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이 산지로부터 공급된 수산물의 저렴한 공급임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기반 마련 등 광양시 수산 유통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운영법인을 전라남도 도매시장 개설 허가 승인 후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는 5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편의시설 운영자를 입찰·공개 모집해 준공 시점에 맞춰 개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배수 개선 농림사업 국비 328억원 확정

미력면·조성면 일원

보성 미력면 일원이 '2022년 배수 개선사업 신규 착수 지구'로, 조성면 일원은 '배수 개선사업 기본 조사 지구'로 확정됐다.

이번 배수 개선사업에는 총 32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배수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미력 도개(덕림, 반룡) 지구는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수혜 농지(75㏊)에 98억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배수로 설치, 매립 등의 사업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곳은 보성강과 접해있는 저지대로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해 배수 개선사업이 시급한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수 개선사업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된 조성 덕산지구는 간척지 농경지로 침수피해가 반복 발생해 농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혜 농지는 총 237㏊이며, 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해 저지대 농경지 침수 예방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우기 및 자연재난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또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전남도 다산 안전 대상 수상 등 재난관리 모범 지자체로 재난대응과 안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